



보도자료 Press Release

2017년 11월 6일

배포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2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 3703-7431

이메일:communications@asaninst.org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한국 사람 만들기 I』 출간 - '한국 사람'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담론-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이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탐구한 인문학 저서 『한국 사람 만들기 I』을 출간했다.

'한국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는 이 책은 "한국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이다."라고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한 개인의 정체성도 태어난 집안, 자라난 지역, 다닌 학교, 몸 담고 있는 직장, 물려받은 사고 방식, 살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 등을 통해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하는데, '한국 사람'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한두 가지 고유한 특성, '본질'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함 원장은 변치 않는 '한국 사람'을 상정하는 대신 '조선 사람'이 해체되고 '한국 사람'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온 정치적, 지정학적, 이념적 요소들을 압축적으로 망라하는 다섯 가지 담론('친중위정책사파', '친일개화파', '친미기독교파', '친소공산주의파', '인종적 민족주의파')을 통해 '한국 사람'이라는 의미의 망을 분석한다.

『한국 사람 만들기 I』의 제1부 '조선 사람 만들기'에서는 '한국 사람'이 대체한 '조선 사람'의 형성 과정과 정체성을 추적한다. 제2부 '친중위정책사파'에서는 17세기, 조선 초기의 급진 개혁을 통해 탄생한 조선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과정을 소개하며, 친중위정책사파의 시대적·사상적·정치적 계보를 추적한다.

『한국 사람 만들기』 시리즈는 전 5권으로 구성되며, 친일개화파 담론을 다루는 제2권은 11월 중에 발간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저자 소개, 제1권 1-2부 주요 내용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한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 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년 펜실베이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5위를 차지하였다.

1. 저자 소개

저자 함재봉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사장 겸 원장이다. 미국 칼튼대학교(Carleton College)에서 경제학 학사학위(1980),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1992)를 취득한 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1992-2005),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UNESCO) 사회과학국장(2003-2005),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한국학연구소 소장 겸 국제관계학부 및 정치학과 교수(2005-2007),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선임 정치학자(2007-2010) 등을 역임했다.

2. 주요 내용 (『한국 사람 만들기』 p. 17)

제1부 '조선 사람 만들기': 조선은 송의 강남농법과 주자성리학, 그리고 명이 이들을 조화시키면서 만들어낸 정치체제를 모두 받아들인다. 조선 초의 개국 개혁 세력들은 주자성리학의 근간인 종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강력한 불교 탄압정책을 펼치면서 종교는 물론 사회 제도와 풍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을 밀어 부친다. 당시 최첨단 농법인 중국의 강남농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양법을 실험하고 수차를 개발하고 측우기와 해시계를 발명한다.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퍼뜨리기 위하여 대 편찬 사업을 일으키고 주자성리학에 입각한 새로운 예법, 풍속을 만들어낸다. 조선 사람은 세종을 비롯한 조선 초기의 개혁 세력들이 중국의 주자성리학 체계를 도입하고자 추진한 급진 개혁이 가져온 대격변 속에서 탄생한다.

제2부 '친중위정척사파': 조선 초기의 급진 개혁을 통하여 탄생한 조선 사람은 17세기에 그 정체성을 시험 받는다. 조선이 늘 오랑캐로 간주하던 여진족이 세운 청은 1636년 병자호란을 일으켜 조선을 복속시킴은 물론, 8년 뒤인 1644년에는 명을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차지한다. 세계 질서가 붕괴되고 문명의 축이 사라지면서 조선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상적, 정치적, 국제 정치적 정체성을 재정립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강력한 쇠국주의 이념을 완성한다. 사라진 명의 문명을 이어간다는 '소중화' 사상과 겉으로는 청을 '상국'으로 섬기지만 내심으로는 '오랑캐'로 경멸하는 '친명반청' 사상을 구축한다. 그리고 청이 강요하는 조공을 바치기 위한 '연행사'를 제외하고는 청과의 모든 교류를 단절한다. 임진왜란 이후 왜관을 통한 극히 제한된 교역을 제외하고는 일본과의 모든 교류를 이미 단절한 조선은 이제 중국으로부터도 자신을 단절시킨다. 쇠국이었던. 이렇게 형성되는 후기 조선의 자아관, 국가관, 그리고 세계관은 조선 말의 위정척사 사상으로 이어진다.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사문난적'(斯文亂賊)인 천주교의 도전과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오랑캐인 '양이'의 출현이 가져온 서세동점(西勢東漸)과 개국의 시대를 맞아 쇠국주의는 19세기에 다시 만개한다.